

독서 활동지
[마음시툰]
너무 애쓰지 말고
앵무, 박성우 / 창비교육

너무 애쓰지 말고
[마음시툰]



글:그림 앵무
시 선정 박성우

서툰 마음을 토닥이는
다정한 위로, 마음 시툰



창비
ChangbiEdu

대상

중고등학생

주제어

#감정읽기 #자기이해 #성장 #웹툰 #공감

작성자

이지수, 경기상업고등학교 국어교사



계획 세우기

>> 다음의 표를 작성하며 독서 계획을 세워봅시다.

단계	활동 내용	날짜
읽기 전	계획 세우기	
	책 만나기	
읽는 중	이야기와 인물 이해하기	
	시와 만화와의 관계 읽기	
	교과서에서 만난 시, 이렇게 달라진다.	
	마음에 남은 시 한 편 깊이 읽기	
읽은 후	제목의 의미 탐구하기	
	나의 마음을 시툰으로 표현하기	
	공감에서 확장으로	
	독서 후 돌아보기	



책 만나기

❖ 책을 처음 보았을 때의 첫인상 정리하기

1. 책의 제목이 '마음시툰: 너무 애쓰지 말고'를 처음 보았을 때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을 적어보자.

2. '너무 애쓰지 말고'라는 말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한 문장으로 써 보자.

3. 시와 웹툰을 함께 읽는 형식의 책에 기대되는 점이나 걱정되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자.



이야기와 인물 이해하기

☞ 책을 읽으며 작성해 봅시다.

1.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.

인물	성격·상황	인상 깊은 점
영길		
보혜		

2. 이 책의 주요 공간인 ‘카페’는 어떤 분위기를 가진 장소로 그려지는가?
그 공간이 이야기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서술해 보자.

3. 이 책에는 뚜렷한 사건보다 인물의 대화와 감정이 중심이 된다.
이러한 구성 방식의 장점을 적어 보자.



시와 만화의 관계 읽기

☞ 책을 읽으며 작성해 봅시다.

1. 인상 깊게 읽은 에피소드 하나를 선택하고, 그 장면의 분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.

- 단어:

- 그렇게 생각한 이유:

2. 해당 에피소드에 함께 제시된 시를 읽고, 시가 만화 장면에서 더해주는 역할을 고르시오.
(중복 선택 가능)

장면의 감정을 설명해 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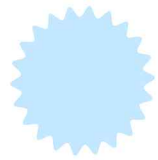
장면의 의미를 확장해 준다.

등장인물의 마음을 대신 말해 준다.

독자에게 위로를 건넨다.

기타: _____

3. 위에서 고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.



교과서에서 만난 시, 이렇게 달라진다

📖 책을 읽으며 작성해 봅시다.

1. 교과서에서 시를 읽을 때 어렵게 느껴졌던 점을 모두 고르시오.

- 의미를 잘 모르겠다.
- 정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.
- 내 감정과 연결하기 어렵다.
- 표현이 낯설다
- 기타: _____

2. 이 책에는 시가 웹툰 이야기 속에 배치되어 있다.

이 방식이 시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서술해 보자.

3. '시를 꼭 분석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다'는 생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.



마음에 남은 시 한 편 깊이 읽기

☞ 책을 모두 읽은 후 작성해 봅시다.

1. 이 책에서 말하는 ‘애쓰다’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?

2. 나는 평소에 어떤 순간에 가장 많이 ‘애쓰고’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자.

3. 만약 이 책이 나에게 한 문장을 건넨다면, 어떤 말일 것 같은가?



나의 마음을 시툼으로 표현하기

☞ 책을 모두 읽은 후 작성해 봅시다.

1. 요즘 나의 마음 상태를 떠올려 그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를 골라 옮겨 적고,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자.

- 선택한 감정 단어 :

- 선택한 이유 :

편안한, 차분한, 안정된, 괜찮은, 담담한, 한숨 돌린, 위로받은, 안도한, 따뜻한, 조금 나아진, 괜찮아질 것 같은, 기대되는, 무난한, 평범한, 그럭저럭인, 특별하진 않은, 그냥 그런, 지친, 버거운, 무기력한, 힘 빠진, 늘어진, 불안한, 조금한, 답답한, 흔들리는, 막힌, 외로운, 쓸쓸한, 허전한, 서운한, 위축된 등 (더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직접 골라도 됨)

2. 위에서 고른 감정을 떠올리며, 그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자. 언제, 어디서,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자.

3. 해당 장면에서 쓰고 싶은 짧은 문장 또는 한 줄 시를 써 보자.



나의 마음을 시툼으로 표현하기

❖ 앞서 떠올린 장면을 바탕으로 4컷 시툼 구성안을 적어보자.

컷	내용 및 장면 그림 대신 말풍선·상징·상황 설명만 써도 됨
1컷	
2컷	
3컷	
4컷	



공감에서 확장으로

❖ 책 속 인물과 장면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, 공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.

1. 이 책 속 인물(영길 또는 보혜) 중 한 명을 선택해, 그 인물이 가장 많이 ‘애쓰고 있었던 지점’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자.

2. 만약 내가 그 인물의 친구라면, 그 장면에서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을지 한 문장으로 써보자.

3. 이 책의 시와 만화는 ‘해결’ 보다 ‘곁에 있어 주기’를 선택한다. 이 방식이 왜 청소년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어 설명해 보자.

4. 다음 중 이 책이 나에게 가장 가까웠던 이유를 고르고, 그 이유를 써 보자.

- 나와 비슷한 고민이 나와서
- 내 마음을 대신 말해 주는 느낌이 들어서
- 시를 다르게 보게 해주어서
-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
- 기타:

→ 이유:
